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 (2)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성경: 엡 3:16-21, 2:21-22, 4:12, 16

- I.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것임을 계시한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이 방면은 건축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 엡 2:21-22, 4:16.
- A. 이 건축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를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건축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수 있는 입지를 얻으셔서, 그분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신다 — 엡 1:10, 3:10-11.
- B. 머리와 몸은 위대한 단체적인 한 사람이며, 이 사람 안에 삼일 하나님께서 계신다 — 엡 2:15, 3:16-17상.
1.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적시시고 변화시키시고 변형시키시어,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합당한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2. 바로 이 몸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머리이신 자신 아래 통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엡 4:12, 16.
- II. 우리가 신성한 건축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엡 3:9, 17상.
- A.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넣어지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시는 것이다 — 딤후 1:4, 고후 13:14, 엡 3:16-17상, 롬 8:9-10, 6, 11.
1. 성경에 계시된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런 항목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는 것이다 — 갈 4:19, 엡 4:4-6.
 2.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그분을 살며,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성경의 초점이다 — 엡 1:9, 3:11, 빌 1:20-21상.
 3.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과 목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 삼하 7:12-14상, 엡 3:17상.

- B. 우주 안에서, 온 시대와 온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자 유일한 일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해 넣어, 하나님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 갈 4:19, 엡 3:17상.
- C.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해 넣는 것이다 — 삼하 7:12-14상, 엡 3:17상, 요 14:20.
 - 1.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를 갈망하시며,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이 한 가지를 위해 있다 — 빌 2:13, 엡 3:17상, 골 3:10-11.
 - 2.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인격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성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 엡 3:17상.

III.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 엡 3:16-17상, 4:12, 16, 2:21-22.

- A.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책이며, 이 책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해 말하고, 어떻게 그 영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지를 말해 준다 — 엡 1:22-23, 3:8, 17상.
- B. 교회를 건축하는 열쇠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다 — 엡 3:17상, 골 3:4, 요일 5:11-12.
- C.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해 넣으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하시어 우리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 — 딤후 4:22, 고전 6:17, 엡 3:17상.
- D.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관하여 기도하였다.
 - 1. 바울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시고 소유하시고 침투하시고 적시시기를 기도하였다 — 엡 3:16-17상.
 - a.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적 부분들의 총체이자 우리의 내적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성향과 애정과 기쁨과 갈망과 관련하여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 내적 각 부분에 공급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 내적 각 부분을 강하게 하신다.
 - b.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확산되실수록, 더 많이 우리 안에 정착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고 이 모든 부분을 소유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이 모든 부분을 적시신다.
 -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어서 우리 존재의 모든 내적 부분을 점유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 엡 2:21-22, 4:12, 16.
 - a.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교회 건축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그들의 내적 전 존재를 소유하시고 점유하시고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그러한 상태 안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한다

- b.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더 많이 점유하실수록, 우리는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 엡 2:21-22, 4:12, 16.
- 3. 에베소서 3장 17절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 것에 대해 말한다.
 - a.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터를 잡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b. 뿌리를 내리는 것과 터를 잡는 것, 이 두 방향을 함께 둘 때 이것은 우리가 자라고 건축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 4. 에베소서 3장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곧 단체적으로 함께 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차원, 곧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건축되어야 함을 계시한다.
- 5.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충만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 엡 3:19.
- 6. 우리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E.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보여 준다.
 - 1. 계시에 의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에게 알려졌다(엡 3:3-6). 따라서 그의 영과 태도 — 그가 본 것, 그가 말한 것, 그의 마음이 관심한 것 — 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관한 이상과 연관되었다.
 - a. 이 문제가 바울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웠다. 따라서 그가 본 것과 그가 말한 것과 그가 관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것과 연관되었다.
 - b. 바울은 이 이상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 이상이 그의 영과 태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다.
 - 2.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 3.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상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 교회를 건축하시는지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영과 태도를 가질 것이며 또한 이러한 종류의 기도와 믿음을 가질 것이다.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

에베소서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 책에는 단지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는 심지어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책은 기적적인 은사들은 언급하지도 않는다. 이 책에 나오는 은사들은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하는 이와 목자 및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지(엡 4:11), 병 고치는 은사나 기타 기적적인 것들이 아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책이다(1:22-23). 이 책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어떻게 그 영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에 대해 말한다(엡 3:8, 16-19). 그분은 외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내적인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

리의 머리이시자 생명이시고,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은 그분의 거처이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이나 심지어 지식과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는 성령의 도장 찍음이 있다(13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으로 계신 것은 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2장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이 있다(15절). 이것도 물질적인 것들이나 다만 성경적인 지식이나 은사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사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아담의 일부였고, 전적으로 아담에게서 나왔다. 동일한 방식으로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일부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취한 것이다.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8, 17절). 4장에서 우리는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도달한다.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침, 심지어 선한 가르침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란다(13-15절).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건축된다(16절).

교회가 생명 안에서 건축되는 길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구원받은 후 성경 지식에 목말랐다. 나는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내가 구원받은 후 육칠 년이 지났을 때, 중국 북부에서 ‘영적 은혜’라는 이름으로 영적 운동이 일어났다. 그 운동은 오순절 운동의 한 분파였다. 그 운동은 영향력이 매우 커서 불과 몇 년 안에 중국 북부 전역을 휩쓸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도 있었다. 나 자신도 그 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그 상황을 연구해 보았다. 결국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운동으로 건축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셨다. 당시 나는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교회가 지식이나 은사나 소위 오순절의 그 영의 나타남에 의해서가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의해서만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보게 하셨다. 지식과 은사들도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것들만으로는 건축될 수 없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건축되어야 한다.

교회 건축의 열쇠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임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은사를 옹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 육십육 권 중에서 교회를 다루는 중심적인 책은 에베소서이다. 교회에 대해 말하는 이 책에서 은사들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해 말한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자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에는 지식과 은사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옹호할 입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항목들은 아니다. 건축에 필요한 주된 항목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과 은사가 필요함을 인정

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 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이가 우리에게 주로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식사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에 대해 말하는 메시지를 거의 듣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눈에 띄는 항목이다. 이 책의 각 장마다 이 문제를 다룬다. 비록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한 책임을 깨닫고 있지만, 많은 이가 여전히 교회 건축의 열쇠를 소홀히 한다. 열쇠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 없다면 교회의 실재가 결코 있을 수 없다.

에베소서의 중심 부분

에베소서에는 바로 성경의 심장이 있다. 심장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보다 심장병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움직이고 말하며 기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끝난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성경의 심장이기 때문에, 원수 사탄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 말하고, 많은 이가 이 책이 교회에 관한 심오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 책의 비밀, 곧 열쇠를 소홀히 한다. 이 책의 심장과 열쇠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게 될 필요가 있음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는 앞 장들과 3장 앞부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예정된 것과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시키시는 것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리시는 것과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과 기타 항목들이 이 계획에 포함된다. 이어서 16절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한다. 속사람은 그 영에 의해 거듭나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이다. 이 영은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이다. 그러나 이 세 부분 중 종종 혼이 가장 강하다. 혼 자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구성체이다. 그리고 이 세 부분 중 생각이 가장 강한 부분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은 너무 강한 반면 영은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해 볼 수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말하기를 좋아한다. 만약 우리가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활동적이고 강하며 적극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침묵한다. 즉시 방은 묘지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모두가 침묵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무덤 앞에서 비탄에 잠긴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에베소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를 위해 만물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속사람에 이르도록, 가벼운 방식이 아닌 무릎을 꿇는 진지한 방식으로 기도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영은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논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야기하고 논쟁하면 할수록 생각을 더 사용한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많이 사용되고 과도하게 발전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지나치게 성장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암이 된다. 우리는 원수가 차지한 이 타고난 생각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토론하는 데서 기도하는 데로 돌이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이해와 관념을 잊어버리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자.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하자.

생각의 회개와 양심의 훈련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열릴 필요가 있음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을 돌이킨다는 의미이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고 생각의 전환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 아닌 모든 것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한다. 생각을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잘못되었는지 보여 주고, 그 결과 우리는 자백할 필요가 생긴다.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은 양심을 훈련하는 것이다. 생각과 양심은 마음의 두 가지 주요 부분이다. 마음은 영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영에 이르는 통로이다.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마음의 두 주요 부분인 생각과 양심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통로가 열릴 때 영이 자유롭게 되어, 주님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확산될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라고 말한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에 두어진다면 우리의 양심은 무디어지고,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에 갇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며, 우리의 실패들을 자백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훈련되고 열리며, 그 결과 우리의 영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셔서 우리 마음의 각 부분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을 위한 거처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성도와 함께 건축됨으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크기를 깨달음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과 18절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라고 말한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터를 잡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방면을 함께 둘 때 우리가 자라서 건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함께 건축될 수 없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툼과

분열이 더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지식과 다름과 분열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오, 주님, 저에게 공활을 베푸소서! 저는 지식이 가득합니다. 저에게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와 함께 당신을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내적인 부분을 점유하시고 차지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건축될 수 있고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으며 단체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누구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크기이다. 그리스도는 길이이시자 너비이시며 높이이시자 깊이이시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시다.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됨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9절은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지식이나 소위 영적인 은사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함께 건축되고, 몸의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몸에 대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실재는 갖지 못할 것이다. 몸의 실재는 바로 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이상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될 때까지 방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이 구절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를 변혁시킬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념은 바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며, 다만 지식이나 은사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기타 이런 종류의 것들도 아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다. 에베소서 3장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본질과 요소에 이르도록 (덮이거나 옷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크기는 이처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조금만 설명하려 해도 여러 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무한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깨닫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건축되는 것도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이다.

교회의 건축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모든 성도에 의해 이루어짐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말하는 권유로 시작한다. ‘그러므로’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3장에서 언급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4장은 계속해서 몸의 건축을 다룬다. 우리가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직접 건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은사 있는 사람들, 곧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신다. 심지어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인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직접 건축하지 않는다. 그들은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란다. 그럴 때 그들은 함께 결합되고 짜이며, 그들이 체험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서로에게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몸으로 함께 건축된다.

교회의 건축에 관한 핵심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다. 은사 있는 사람들인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공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이 자라서 생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방면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 실행, 건축, 104-113쪽*)